"군수님 할 말 있습니다!"…화순군, MZ세대 직원 간담회

직원 764명 중 18% 134명 20대 직원…익명 의견 취합

구복규 군수 "참신한 의견 많아…가능한 부분 적극 반영"

화순군이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구복규 화순군수와 MZ세대 직원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젊은 직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화순군은 직원 764명 중 18%인 134명이 20대 직원이다.

이에 군수와 젊은 직원 간 소통은 물론 세대 간 소통을 위해 소통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구복규 군수와 화순군청 20대 직원 100여 명, 선배 세대(30·40·50대) 직원 15명이 참석했다.

밀레니엄(M) 세대인 80년대 초반 생을 포함하면 만 42세 이하 직원이 대상이 되므로 젊은 세대와의 소통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요 참석 대상을 20대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간담회에서는 익명으로 미리 취합한 MZ세대 직원들의 의견과 고충에 관해 토론하고 현장에서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참석자 중 나이가 가장 어린 배찬진 재난안전과 주무관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을 대할 때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다음날 민원인에게 전화라도 다시 한번 걸어보라는 조언이 인상 깊었다"며 "민원이 많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젊은 직원들의 의견에 관해 군수의 생각도 있지만, 다른 세대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선배 세대 직원 몇 명과 간담회를 함께 했다"며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의견도 많았고, 오해에서 비롯한 고충도 있었다. 즉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안 되는 것은 정확한 이유를 밝혀 안 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가까이서 군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직원도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소통의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해 더욱더 수평적인 조직, 화합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콩·팥 자동선별 호응

탈곡기 100대 임대 및 12월 16일까지 대형 자동선별기 설치·운영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콩 자동 선별 작업이 농가 일손을 덜어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동수동 본점에서 콩 탈곡기 100대 임대 서비스와 대형 콩 자동선별기 3대를 설치해 콩 정선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종류별로 '메주콩', '서리태', '팥' 전용 선별기가 가동 중으로 일평균 9톤에 달하는 콩, 팥을 정선할 수 있다.

수확한 콩·팥은 미숙립, 이물질 등이 섞여 있어 선별과정이 필수다.

자동선별기를 이용하면 많은 양을 빠르고 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어 밭작물 수확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자동선별기는 오는 12월 16일까지 운영되며 40kg기준 2천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전 예약제로 임대사업소 본점 전화(☎339-2601)로 신청하면 접수 순번에 따라 운영된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농기계 임대 사업소 7개소에 무료 셀프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세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농업인의 임대 농기계 세척에 고민했던 농업인들의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청결하고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에 보탬이 되고 있다.

나주=송준표 기자

곡성군, 농가경영개선지원사업 경진 최우수 기관 선정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을 통해 농가 경영개선에 기여

곡성군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이 개최한 2022년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 등 농가 경영 개선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자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평가는 광역단체와 기초 지자체로 나눠 진행됐으며, △강소농 사업 추진 성과, △경영개선 공동체 참여, △청년 강소농 육성, △사업예산 집행 실적, △강소농 사업 홍보 실적 등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는 강소농 역량 강화, 청년 강소농 육성, 강소농 자율모임체 지원 등을 통해 농가 경영 개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단계별 맞춤형 역량 강화를 위해 강소농 기본 과정과 전문 과정을 구분해 강소농 교육을 실시한 것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강소농 자율모임체 역량 강화 교육를 통해 팜파티를 개최하는 등 농가 소득 창출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에도 기여했다. 청년 농업인 경영 개선 실천 교육으로 비즈니스 아이디어 도출, 농산물 마케팅 홍보 등 청년강소농 육성에도 노력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경쟁력 있는 강소농을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곡성=양해영 기자

담양군 임업후계자 김정순 씨, '전국 임산물 9도 요리 경연대회' 대상

'담양 죽순정과' 선보이며 죽순의 우수한 품질 전국에 알려

담양군는 최근 열린 제31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전국 임산물 9도 요리 경연대회'에서 담양군의 임업후계자 김정순 씨가 '담양 죽순정과'를 선보여 대상의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라남도지회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해 담양 죽순의 우수한 품질과 가공식품으로써의 무한한 가능성을 전국에 선보인 김정순 씨는 지난 10월 7일 함평에서 열린 전남 임업인 한마당잔치에서도 담양군 대표로 출전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정순 씨는 "죽순정과는 우리군의 주요 임산물인 죽순을 조청에 조려 흑임자·콩가루·깨 등을 입혀 만든 음식으로, 우리 담양만의 전통식품으로서 세계적인 슬로푸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금성면에 거주하며 농업과 임업을 복합경영하고 있으며 부녀회 활동, 사회봉사활동 또한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김정순 씨는 이번 경연대회 상금 6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혀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군, 뮤지컬로 만나는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구례군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4회에 걸쳐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 예방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였다.

이번 공연(제목: 클린업! 어게인)은 초기 흡연을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호기심으로 시작한 흡연이 중독에 이르고, 건강까지 잃게 하여 정작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 뮤지컬 공연 관람 후 금연선포식을 진행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금연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뮤지컬을 관람한 한 학교의 선생님은 "학생들이 관심 있는 힙합을 소재로 내용을 구성해서인지 모두 집중하여 관람했다면서 앞으로도 뮤지컬로 금연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포스코SPS 포스코엠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터미널 포스코A&C